

섬을 찾아 떠나는 마음의 여행 장그르니에의 「섬」

— 시인 李生珍씨



조금이라도 시간만
나면 화첩과 노트를
손에 들고 섬을 찾아
떠나는 시인이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근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3400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 그 섬 하나하나에 서린 꿈과 전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노래하는 시인이 있다.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지만 영원히 정신만은 젊어 있는 시인 이생진씨(59·보성중학교 영어교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거의 운명적인 것 같아요. 나의 고향은 충남 서산으로 해변에서 십리쯤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지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누이와 함께 뱃에서 계를 잡고 조개를 줍던 장면이 선연히 떠오르곤 해요. 어느 외국시인의 말대로 바다가 나를 부르니 나는 그곳을 찾아갈 도리밖에 없는 거지요.”

그가 지금까지 낸 12권의 시집은 「바다에 오는 이유」「산에 오는 이유」「섬에 오는 이유」「그리운 바다 城山浦」라는 제목들이 말해주듯이 산과 바다를 찾아 해매고 떠돌던 시인의 ‘순례기’에 다름 아니다. 섬에만 가면 마치 굳은 땅에서 샘이 솟듯이 자연스럽게 시가 썩어졌다곤 한다. 태풍으로 무너진 방파제에 누워 밤을 새울 때 예쁜 달이 시가 되었고, 바닷가에서 갈매기랑 놀던 흑염소가 시가 되었다. 민박집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모녀의 울음소리, 盛漁期에 돈벌러 온 소녀의 한숨소리, 황혼무렵 목로에 앉아 들은 섬사람의 다투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시의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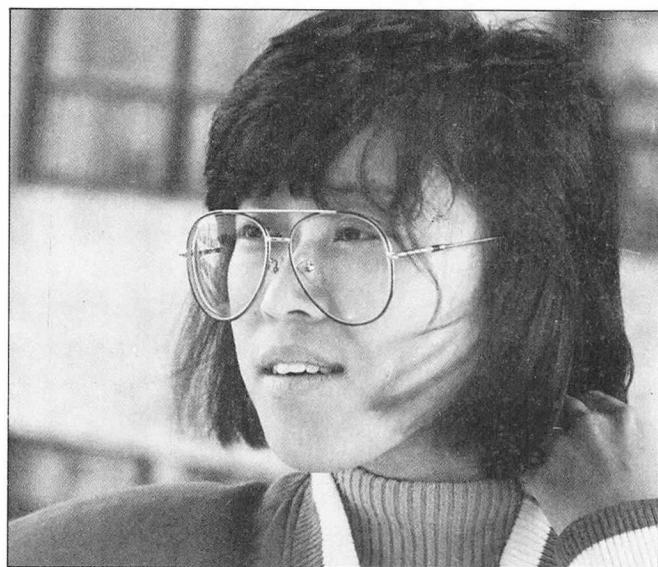
만일 저승에 갔을 때 누군가 넌 무얼 가져왔느냐고 물으면 “시를 가지고 왔다”고 대답하고 싶다는 그는 독특한 독서취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는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시 꼭 혜화동로타리에 있는 단골서점에 들른다. 서점 구석에 아예 전용의자가 있어서 30분 정도 마음에 드는 책—주로 젊은 시인들의 시—을 읽고 간다는 것이다.

최근 그가 다시 펼쳐보고 있는 책은 그르니에의 아름다운 수상집 「섬」(82). 그르니에의 제자 까뮈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스무살이었다.… 오늘 이 책을 열어 보게 되는 저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다”고 찬탄했던 이 책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까뮈는 그르니에의 글이 ‘마치 쿼터처럼 일종의 음악과도 같다’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 속박으로부터의 탈출, 지금·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가고 싶다는 낭만적 동경, 바로 이것을 이 책은 제목부터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내 시는 쉽고 평이한데 그르니에의 「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섬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고독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울 가운데 다시 읽고 심취해보고 싶군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쏘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 말라”는 푸쉬킨의, 이제는 진부해져버린 식귀가 진실로 다가온다. 매미라는 곤충은 지상에서 일주일 동안 울기 위해 땅속에서 14년을 견딘다는 그의 말에서 어떤 경건함조차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때문이라.

— 남진우 기자



컴퓨터시대의 필수지침서 김정흠 칼럼 「7년마다의 바람기」

— 정신여고 교사 朴蘭珠씨



마릴린 몬로가 주연한
영화에 「7년만의
외출」이란 작품이 있다.
결혼 후 7년째 되는 해
부인이 여행간 틈을

타서 살짝 바람을 피우는 어느 월급쟁이의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지하철 환기구 위를 지나가던 마릴린 몬로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늘씬한 각선미가 드러나는 유명한 장면으로 영화팬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다.

컴퓨터 세계에도 7년을 주기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는 묘한 징크스가 있다. 그러나 「7년마다의 바람기」이란 이름을 붙여도 과히 망발은 아닐성싶다.

“컴퓨터하면 으레 대학연구실이나 회사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로,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만 생각하곤 했지요. 우연한 기회에 친지의 소개로 김정흠교수의 「7년마다의 바람기」(정보시대, 88)를 읽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워낙 기계나 컴퓨터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탓인지 주변 사람들이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정신여고 국어교사 朴蘭珠씨(25)는 전형적인 국문학도답게, 저자가 컴퓨터 세계를 쉽게 풀어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더라며 웃는다.

사실 ‘정보화시대’다 뭐다해서 빠르게 변화해가는 컴퓨터의 발전속도를 일반인들이 제때 따라잡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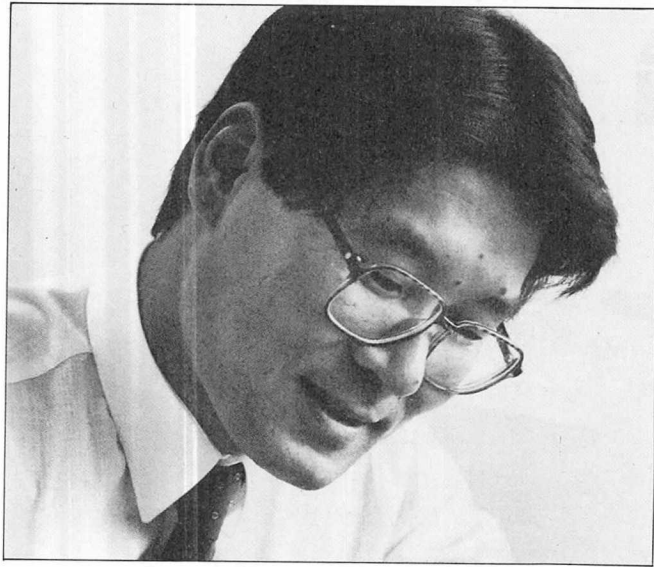
인류최초의 컴퓨터가 발명된 것이 1946년. 에니악(ENIAC)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던 이 컴퓨터는, 30톤 정도의 무게에 30m 길이의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그러던 것이 1952년경 진공관을 사용하는 상용컴퓨터로 발전됐고, 트랜지스터와 IC(집적회로)를 이용한 컴퓨터를 거쳐 모든 기능을 손톱크기의 마이크로 칩에 집적시킨 이른바 마이크로 컴퓨터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여기에 힘입어 퍼스널 컴퓨터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는 컴퓨터가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 007가방 크기의 컴퓨터를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랩톱PC의 시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서울올림픽에서 이 랩톱PC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느긋하게 가을햇살을 즐기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구미기자들의 모습은, 바로 신세대 컴퓨터의 놀라운 기동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저자는 첨단기술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상세히 살피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의 작동에서부터 은행의 온라인시스템, 복사기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기술이 이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요.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니까, 정말 컴퓨터를 모르면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도 되네요. 저처럼 기계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취급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박난주씨가 교직에 몸담은지는 3년 정도. 올해로 개교 101주년을 맞이한 학교답게, 연륜을 자랑하는 선배교사들 속에서 그는 맨 막내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개교기념축제를 맞아 학생들과 어울린 그의 모습은 근엄하고 까다로운 여교사라기 보다는 친구이자 언니같기만 했다.

— 오애리 기자



변혁기의 경영혁신 조명 白永勳의 「내일의 經營 충격」

— 기업인 龍鎬彬씨

지금 독서중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는 방법과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창조하는 의지”다. 이 글귀는 용호빈씨(47·미쉐린 코리아 타이어 전무)가 공감하여 읽기 시작한 「내일의 經營衝擊」(白永勳, 부림출판사, '87)의 프롤로그.

24년만에 고국땅으로 돌아와 ‘미쉐린 코리아 타이어’에서 새로이 일터를 일구는 작업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용호빈씨에게 이 책은 틈틈이 경영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방편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 줄곧 프랑스회사에서 일해온 용호빈씨는 이제 전문경영인으로서 확고한 뿌리를 박기에 충분한 기초와 야망을 가졌다고 자부했다.

“사실 책을 읽기엔 너무나 바쁩니다. 새롭게 해야 할 사업과 적응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요. 하지만 아주 틈틈이 짚는 대로 손에 책을 드는 것이 버릇처럼 돼서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죠. 책은 주로 일과 관련된 경제잡지와 공업경영에 관한 전문서적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는 빈틈없는 경영철학을 가진 용호빈씨는, 국내기업가 정주영씨·이병철씨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기업가정신을 배운다고 했다.

“이 책은 한국에 와서 처음 읽게 되는 셈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세계정세의 변화라든가 미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인의 혁신적인 모습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군요. 한국적 입장이 전제돼 있어 제가 한국기업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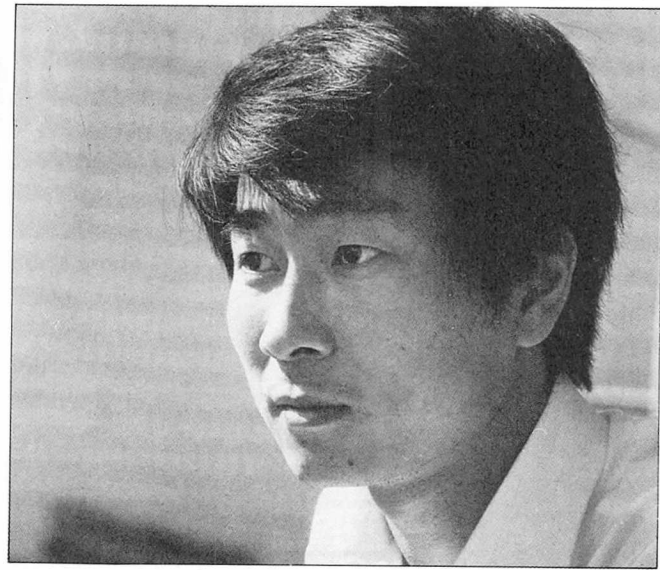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에는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이 있어 그것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용호빈씨에게는 다분히 서구적인 냉철함과 분명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내친 김에 한국인의 독서생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서에 선택의 여지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프랑스인들은 철학이나 역사책을 아주 일반적으로 읽고 있죠. 그들은 개인이 현명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역사와 철학에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온지 한달밖에 안됐지만 언뜻언뜻 비교되는 점이 많으며, 프랑스에는 도서관이 동단위마다 마련되어 일반인들이 아주 잘 활용한다는 얘기도 들려준다. 소설이나 월간지는 서점에서 구입하고 그 나머지 책은 거의 도서관에서 대출해 읽는다는 것.

“그런 공공복지시설은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이를테면 사원복지를 위한 탁아소·유치원·병원 같은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죠. 사원복지는 기업정신의 척도라 할 수 있으니까요.”

일에 관한 한 자신감을 잃지 않지만 그보다 ‘백가지 기술이 한가지 정성만 못하다’는 말을 명심하고 늘 ‘정직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며,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한국생활일랑 일에 파문힘으로써 해결하겠다고 전문경영인다운 열정을 보인다.

— 김지원 기자



광기의 사회학에 대한 소설적 탐구 최창학의 장편 「긴 꿈속의 불」

— 회사원 林燦日씨

지금 독서중

“감동보다는 충격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작가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사회, 어쩌면 광기로 가득찬 사회 속에서 제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탐구한 작가로 누구보다도 최창학씨를 꼽고 싶군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서비스 사보편집실의 林燦日대리(33)는, 이른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세계를 해부해온 최창학씨의 작품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보고 반성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책의 계절인 이 가을에 손에 든 작품 역시 최창학씨의 「긴 꿈속의 불」(흔겨레, 88). 다소 시적인 제목을 지닌 이 작품의 주인공은 현민이란 이름의 정신과 의사다. 정신병원에는 갖가지 사연을 지닌 환자들이 찾아 오는데, 그중에서도 최동인이란 젊은 대학생이 그의 관심을 끈다. 재수·삼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하던 최동인은, 도서관에서 운동권 학생들로부터 우연히 받은 전단 때문에 6개월 징역과 퇴학처분까지 당하게 돼자 급기야는 정신이상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현민은 최동인의 병을 통해 불안한 우리 정치현실의 한 단면을 본다.

한편 그는 병원 밖에서도 수많은 이상성격자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6·25당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어머니의 부정한

과거로부터 비롯된 어두운 가정환경, 미국유학시절 국제결혼한 아내와의 불행한 결혼생활, 그리고 환자의 여동생으로 그와 가까웠던 혜림의 납치와 살해가 그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 작품에서 현민은 단순히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이 땅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갈등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병의 뿌리가 너무 깊어 쉽게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끝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 지식인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케 됩니다.”

현민의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아내 애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구절에 잘 나타난다. “나는 오래가지 않아 이 직업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오. …그러나 노력해 보겠소. 그들대로의 긴 꿈속에서 불같은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땅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다가 정말로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이 땅을 떠나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소”라고 현민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최창학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지자 학창시절 문학지도를 받았던 분이기도 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간다고 말하는 임찬일씨 역시 1986년 「월간문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한 바 있다. 작가란 말보다는 작품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을 통해, 바쁜 회사업무 속에서도 창작에 몰두하는 작가로서의 의욕을 언뜻 읽을 수 있었다.

— 오애리 기자